

청년실업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권 오 일 (중앙노동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사)한국정보평가협회회장)

● 청년층 실업 현황

우리 주변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청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80-9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면 대부분 취업이 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최근의 노동시장에서는 인문계 출신의 취업난을 표현하는 인구론(인문계90%가는다), 문송(문리과라서 죄송합니다)등의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

2015.10월 현재 전체 실업률(14-64세)이 3.1%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8.0% 수준으로 약 2.6배나 높은 것만 보더라도 청년취업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예고세대) 영향으로 20대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높은 진학률('90년 27.1%→2010년 75.4%)과 고학력 중심의 인력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대졸실업률이 고졸실업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고학력층의 체감실업률은 발표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편이다.

● 청년고용 부진 원인

청년고용부진의 원인은 경제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저성장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ICT의 발전, 기술력향상, 생산자동화시설 투자확대 등 인력중심의 제조업이 기술, 장비중심으로 전환되고 성장과 고용의 연계 고리가 약화됨에 따라 결국 신규 인력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다음 구조적 요인으로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베이비부머세대의 자녀세대가 노동시장으로 대거 진입하고 고학력자의 공급이 지속되는 반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등으로 인해 청년층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으로 신규 채용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괴리현상이 청년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청년고용대책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학교, 보건, 보육분야, 공공기관, 공무원 등 공공부문 21,000여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일자

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바이오, 전자정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유망·성장직종 중심으로 매년 10만 명 정도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대상도 대학재학생, 인문계재학생의 훈련비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학습병행제도입,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을 통해 인력양성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대학구조 개편으로 대학의 체질도 개선하고 청년의 해외취업을 문도 넓혀 나갈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와 같은 대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때 청년실업률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마무리

취업은 부모님이나 친지, 동료들이 대신 해 줄 수 없는 오로지 청년 자신의 몫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성, 흥미검사 등을 통해 자신이 평생 동안 즐기면서 일 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청년들이 제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노동력상실의 부작용이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노력을 정부에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추진해 주길 기대해 본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청년층이 손잡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알콩달콩 가족이야기 ①

우리 마을, 장안동 ①



권기정

“어디 사세요?”

“아... 저가... 장안동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이 질문에 언제나 나만 조금쯤 망설이며 대답하곤 했었다. 장안동. 이렇게 대답하면 아뭏든 웃음을 보이거나 ‘그 동네’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곤 하는 터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든 탓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어린 시절부터 한창 예민한 시즌기를 지나 대학생이 되던 때까지도 장안동은 유흥업소가 모여 있는 곳의 대명사처럼 쓰였다.

학창시절에는 부모님께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조르기를 수차례 해보았지만 우리 집은 늘 장안동 근처로만 뱅뱅 돌았다.

“엄마, 도대체 왜 이 동네에 사는 거야?”

“기차역이 가깝고 교통 편하고 살기 좋잖아.”

간단명료한 엄마의 대답.

“우리는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야하는데 기차역 가까운 동네가 편하잖아.

그리고 살다 보니까 정들어서 다른 동네 가기 싫어.”

그런 거였다. 우리 부모님의 고향은 경북인데,

제사며 명절이며 내려갈 일이 많았다. 그럴 때면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반드시 청량리역에서 경부선을 타곤 했었다. 조부모님께서는 다니러 오실 때면 기차를 타고 오시는 일이 잦았다. 그런 이유로 두 분이 신혼살림을 기차역 주변에 차리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보면 어릴 때는 정말 기차를 자주 탔었다. 설, 추석에는 두말나위 없고 수시로 제사며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 친척들 결혼식 등에 참석하느라 우리 가족은 늘 기차역으로 향하곤 했다. 앨범을 펼치면 열차 안에서, 기차역에서 다양하게 찍힌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많았다.

새벽에 간신히 눈을 떠 웃을 입는 등 마는 등하고 청량리역으로 가면 어느새 우리 삼남매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열차 좌석번호표 찾기에 열을 올렸다. 기차 출발을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세고, 칠푼뚝뚝 바퀴가 굴러갈 때의 그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다. 엄마가 산 맛있는 김밥으로 아침을 먹고도 아저씨를 기다렸다. 바로 온갖 과거와 삶은 계란, 아빠가 좋아하시는 시원한 맥주까지 담겨 있는 간식 카트를 밀고 오시는 분 많았다.

(다음호에 계속)



100세 시대의 노후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 권기문

현대 산업사회에서 우리 인간은 돈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어렵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돈에 대한 속단도 많다.

“돈이 장사다” “돈이 사람을 만든다”

“돈은 힘이다” 등등 ...

인생살이 황혼년에 돈 없으면 주위 사람들로 부터 괘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왕따가 되고 정말 살기가 싫을 정도로 외로워진다.

노후에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무엇보다도 체면 유지사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하지만 돈 걱정이 문제라면 그 돈이 어디에 필요한지부터 세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막연하게 돈 걱정만 하면 걱정만 키우게 된다. 돈 걱정을 하지 말고 해결 방안을 먼저 생각한 후 자금을 기준으로 삶의 규모와 생활 전반의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노후에는 지출 비용을 줄여야 하며 수입은 없는 데 지출만 늘어간다면 당연히 적자생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노후 생활에는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물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잘 활용하며 자금관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3. 건강 관리

돈만 있다고 노후 생활이 행복한 것만도 아니다.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건강이 좋아야 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라는 말이 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지 병들면 고치기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황혼년 노인들도 마음만 젊으면 청년이치 나이는 속일 수 없다.

나이가 들면 눈이나 코, 무릎과 어깨, 팔과 다리 등 몸이 성한 곳보다 아픈 곳이 더 많아진다.

돈, 명예, 권력, 사랑, 자녀, 부모형제 등등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행복도 다를 것이고 종류도 다양할 것이다. 제 아무리 소중한 큰 재물과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삶은 도루묵이다” 하는 말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건강 유지는 주로 유산소 운동, 즉 걷기가 최고인 것 같다. 계절에 맞춰 보양도 먹고, 산천 경계를 유람도 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운동을 겸비해 지속적인 자기만의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4. 인간관계와 역할

노후대책으로 첫째 돈이 있어야 하고 둘째 건강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인간관계로서의 역할이다.

평생을 같이한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부부관계의 윤택화를 이뤄야 하는데 어느 한쪽이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부부지간에도 백년해로를 하고 98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죽는다)가 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지만 죽음이란 하늘의 뜻이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잖아...

나이가 들어 자유스러운 시간이 많으나 여행, 등산, 낚시, 연극, 영화도 하루나 이틀이고 한 달, 두 달이지 노인들에게는 여유롭고 한가한 시간이 너무도 길고 짜증스러워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낼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 중의 상고민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직장 은퇴 후의 삶이 길어졌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제 2의 인생을 철저히 대비해야만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

으리라. 노후 삶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충 그 해답을 정리해 보면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감을 가지며 주위로부터 신뢰성을 쌓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성에 맞는 일, 앞으로 2-30년을 일할 수 있는 직업과 일을 찾아서 하자.

둘째, 나의 주변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사랑을 쏟고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일을 찾아서 하자.

셋째,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는 일 즉 시민단체, 종교단체, 종친회, 각종 봉사 단체의 일에 참여하자.

넷째, 그래도 어렵고 모자라는 어학이나 컴퓨터, 사진, 악기, 애완동물 키우기 등 취미생활에도 열정을 가져 보자.

다섯째,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댄스, 노래 교실, 수영 등 건강을 단련시킬 수 있는 스포츠에도 관심을 가져 보자.

여섯째, 잘 노는 노인이 되어야 한다. 잘 노는 것은 아주 쉬운 일 같아도 매우 어렵다.

놀이는 문화이며 잘 노는 사람이 멋진 노인의 시대를 만들어 준다.

또한 자기가 잘 아는 것을 후진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더욱 즐겁고 보람된 일이다.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다가 더 많은 것을 얻고 왔다는 노년의 자원봉사자들의 체험담을 TV나 신문을 통하여 듣고 보았을 것이다.

힘찬 세상을 오래 살아온 멋진 나만의 노후으로 인생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노인”으로 자부심과 보람은 노년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 생명력이다.

5. 글을 마치며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 우정, 존중, 배려, 아름다움 그리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제 2의 인생인 우리들의 멋진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자. 노년의 환한 웃음과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한 1-2년 간의 여유 있는 준비와 앞으로 나만을 위해 자신에게 투자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알렉산더 푸시킨의 유명한 시구다.

하지만 세상이 제 뜻대로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만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운명이다.

훌륭한 노인의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삶의 깨달음을 터득해야 한다.

가디리는 죽음이 아니라 후회스럽지 않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노가 할 수 있는 일을 디자인하자.

그리고 “훌륭한 노인의 삶의 멋진 패러다임”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물려주자. 이 또한 멋진 인생이 아니겠는가!

100세 시대의 노후 대책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깁 없는 투자와 자기만의 행복을 느끼며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감히 말한다.

취업 성공의 핵심전략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

□ 박준범(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 중점교수·법학박사)

오늘날 국내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은 고용의 유연성을 갖지 못하여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한 현실이다.

아무리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고 노력하지만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 더욱이 고령화 시대에서 취업을 하여야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신의 미래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지만, 현실은 구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

“취업이란 무엇인가?”

취업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발전과 자아실현의 목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첫째,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깨워라. 자신의 내야함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몇 번의 취업도전에 실패하다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분별력을 잃고 나약한 존재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나약한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로 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나약한 생각의 뿌리를 뽑고 더 푸른 꿈과 희망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셋째, 더 높은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목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취업을 위한 전략으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업과 노동시장을 분석하여 자신이 평생시에 직종과 직무에 대한 관심과 적성에 맞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나 회사 등 융합적인 판단으로 목표전략을 세워야 한다. 즉, 자신의 정의 성이나 적응성, 전문성이나 특성, 흥미, 가치관, 직장의 안정성, 근무환경 등을 파악하고 자신이 직무에 대한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목표전략을 세워야 한다.

넷째, 직업에 대한 취업환경 분석을 해야 한다. 직업에 대한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 직업의 강점과 약점, 직업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취업의 강점은 높은 스펙과 이력서, 공모전 입상경력, 각종 자격증 취득, 인턴 경력, 외국어와 컴퓨터 활용능력, 해외연수, 기획력 등이며, 약점은 신규채용 감소, 높은 실력자와 경쟁, 비전공분야 취업 등이므로 이러한 취업환경 분석은 취업의 핵심전략이다.

다섯째, 역량과 가치로 성패를 가려라. 취업의 핵심전략은 자신의 직무적성능력과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직무적성능력의 상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식, 기술, 습관 등으로 미래의 나타날 가능성을 상승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잠재된 적성을 다양한 실력으로 직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역량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개인에게 내적으로 잠재된 특성을 상승시켜 직무역량을 상승시켜야 한다. 직무적성에 따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기업가 정신에서 조직 내의 조화와 협력으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직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학습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는데, 이는 생각과 창조력, 창의적인 문제해결, 판단과 결정,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혁신 능력 등을 말한다. 이러한 역량 배양은 개인의 경험과 반복된 연습, 가치관이나 신념, 성격, 태도, 등을 통한 학습에서 이루어진다.

여섯째, 취업의 맥을 잡아야 성공한 한다. 우리나라 산업과 기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즉,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부채상환, 배당금지급 등 경영활동 분석하고, 기업의 가치, 경영기반, 경영력, 경영조직, 경영정책, 기업운영등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영조직이 지향하는 경영목표, 경영방침이 적합한지를 분석해야하며, 기업의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주식시장을 통하여 기업이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가 시장가치로 분석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파악하여야 취업을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을 극대화함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나 관행, 노사관계, 규제, 정부부족 등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경직된 것을 막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변화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시켜 취업의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즉, 경직된 노동시장을 잘 분석하여 조건과 역량에 맞는 구직을 선택하여야 한다.

“전나무는 생대계가 위험할 때 꽃을 피운다.”

취업도 취업이다.

젊음은 인생에서 황금시기이지만 취업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창업을 하면, 정신적으로 평온해지면서 새로운 길이 보이기 마련이다.

창업은 1인 또는 다수가 개인사업 또는 법인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는 것이다. 창업의 성공요인은 기업가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창업자의 자질과 특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창업가는 창업의 업종선택과 유통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창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시설자금, 운영자금, 예비자금)과 사용 그리고 조직 관리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창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상품시장에 대한 마케팅조사를 한 후, 상품의 선정과 상품가격을 선택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전망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창업의 유형은 점포창업, 중소기업창업, 벤처기업창업 등이 있다.

“새로운 취업시대가 오고 있다.”

새로운 취업의 시대는 논리와 이성 등의 합리성이 지배하던 취업시대에서 감성과 공감 등이 지배하는 취업시대가 되면서, 창조능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역량배양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